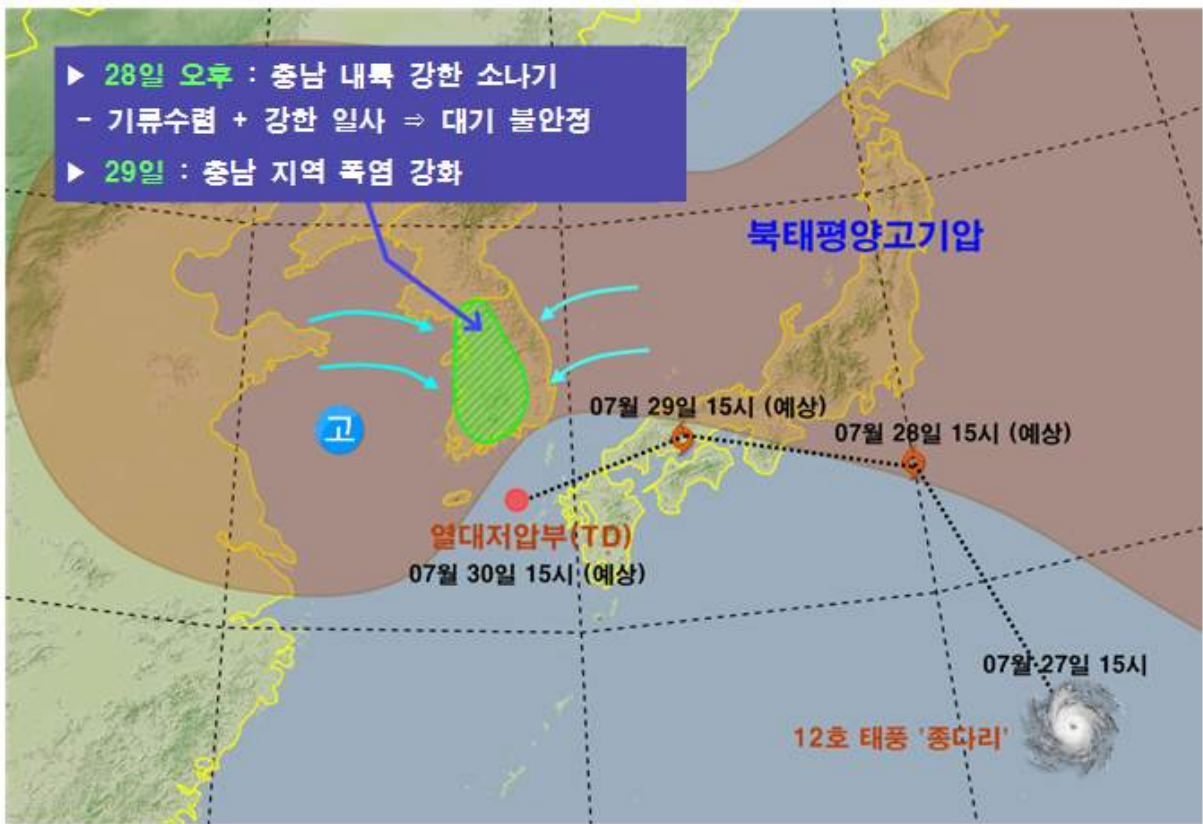


설명자료

배포일시	2018. 7. 27.(금) 17: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예 보 과	담당자	과 장 예보관	허 복 행 박 종 경	전화번호 042-863-0367

이번 주말(28일 오후) 강수와 폭염 전망

- 28일 내륙 중심 강한 소나기, 29~30일 충남지역 폭염 강화
 - ※ 소나기 지역 일시적으로 기온 떨어지나 이후 폭염 상황 지속
- 제12호 태풍 종다리 30일 제주도 부근 해상 진출



<28일 오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 최근 우리나라는 주변 기압계의 흐름이 매우 느려진 가운데,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낮 기온이 35℃ 이상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음.

[강수 전망]

- 내일(28일)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는 동풍과 서풍이 수렴하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음. 특히,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대기불안정이 매우 강해지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피서객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람.

※ 예상 강수량 (28일 오후)

- 충남 : 10~60mm

- 29일(일)은 태풍이 일본 부근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이 유입되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
- 30일(월)은 태풍이 일본 부근에서 다소 약화되면서 일본 규슈 부근으로 이동한 후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진출하겠음. 이에 따라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수 가능성이 있겠으나, 태풍의 진로와 강도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람.

[폭염 전망]

- 29~30일에는 강한 일사와 동풍 효과가 더해지면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35℃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으면서 폭염이 강화되겠음**. 또한, 밤에는 지면이 습한 가운데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태풍 정보]

- 제12호 태풍 종다리는 27일(금) 15시 현재 중심기압 965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27m(시속 133km), 강풍반경 300km의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10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2km 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음.
- 이 태풍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저기압성 순환을 만나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북서진하는 특이 진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8일(토) 밤에 일본 남부로 상륙한 뒤, 30일(월) 낮에 제주도 서귀포 동쪽 약 15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 향후,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형태에 따라 태풍의 진로가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람.

□ 첨부

1. 태풍 정보 (2018. 7. 27. 16시 발표)

첨부 1

태풍 정보(2018. 7. 27. 16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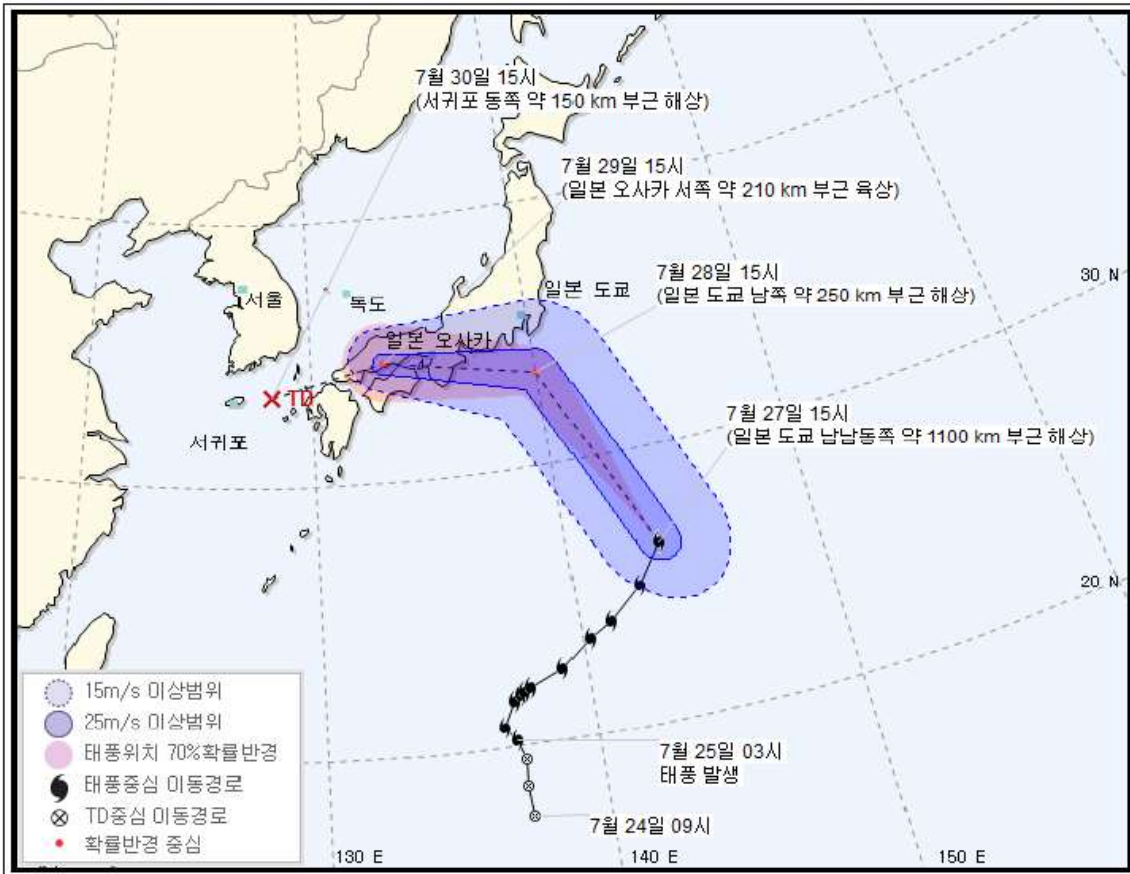
제12호 태풍 종다리(JONGDARI)

태풍예보관 김동진

기상청 태풍정보 제12-11호

2018년 7월 27일 16시 00분 발표

일시	중심위치		중심기압 (hPa)	최대풍속		강풍반경(km) [예외반경]	강도	크기	진행 방향	이동 속도 (km/h)	70% 확률 반경 (km)
	위도	경도		초속 (m/s)	시속 (km/h)						
27일 15시 현재	26.4N	143.7E	965	37	133	300[남서 약 220]	강	중형	북동	32	-
28일 15시 예상	33.5N	140.0E	965	37	133	300[남서 약 220]	강	중형	북서	34	110
29일 15시 예상	34.5N	133.3E	985	27	97	150[남남서 약 120]	중	소형	서	26	170
30일 15시 예상	33.4N	128.2E	994	15	54	-	-	-	서남서	20	-



- ※ 제12호 태풍 종다리(JONGDARI)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종다리를 의미함.
- ※ 이 태풍은 72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정보는 오늘(27일) 22시경에 발표될 예정임.
- ※ 태풍이 약화단계에서는 위치의 불확실성이 높으니 유의바람.